

‘레드 빈’ 시대 쉬테-리호츠키의 주거 계획 개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chütte-Lihotzky's Concepts of Residential Planning in the Red Wien Era

Author 전남일 Jun, Nam-Il/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In addition to the well-known ‘Frankfurt Kitchen’, Austrian female architect Margarete Schütte-Lihotzky’s architectural achievements include a study on the housing for working class, contribution to the resident participation movement, the planning of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rational floor plan design, and the design and study of interior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he, who played intermediate roles between an architect and a social reformer, reflected social issues and the demands of living on the housing plans in the Red Wien era and to discuss diverse issues of modern residential planning furthermore. In this study, first, the housing situation in Vienna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 was grasped and the architectural and housing discourses at that time were examined. Thereafter, cases of Schütte-Lihotzky’s work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modern times, the concepts of residential planning of Schütte-Lihotzky, who began as a social democratic architect, often showed transitional tendencies in private and public functions of housing, spatial distribution for the daily life, and functions of modern family and home. However, thereafter, the paradigm of the rationalism-functionalism was already sprouting from her architectural and residential plans.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works of Schütte-Lihotzky has realiz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residential planning and become a cornerstone of the later modern housing.

Keywords 쉬테-리호츠키, 레드 빈, 사회민주주의, 근대주거, 노동자 주택, 프랑크푸르트 부엌
Schütte-Lihotzky, Red Wien, Social Democratism, Modern Housing, Housing for Working Class, Frankfurt Kitchen

1. 서론

2000년 MAK(Museum für Angewandte Künste Wien: 비엔나 응용미술박물관)에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이하 빈) 태생의 여성건축가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 1897~2000)(이하 쉬테-리호츠키)¹⁾의 전시가 개최되었다. 전시 기념 인터뷰에서 그녀는 “왜 건축가가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건축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인간 삶에 기여하는 분야이며, 테크닉이다. 건축은 시각적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따라서 매우 세심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답하였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와해되고 1차 세계대전을 거쳐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격동의 시대에 생애를 보내면서, 건축가로서의 활동과 함께 사회운동가 및 여성운동가로

서 개혁주의적 활동을 동시에 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성건축가인 쉬테-리호츠키는 우리에게 소위 ‘프랑크푸르트 부엌(Frankfurt Kitchen; Die Frankfurter Küche)’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는 부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녀가 남긴 다른 건축적 성과는 간과되고 있다. 하지만 쉬테-리호츠키의 일생의 궤적에는 사회운동가로서, 여성 운동가로서의 역할 역시 매우 크게 자리한다. 사회 상황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건축적 성과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도시문제, 공동주택의 계획 및 실현 방안, 합리적 공간구성에 대한 설계 및 연구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쉬테-리호츠키의 작업을 중심으로 건축이 물리적 건조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 이 논문은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그녀의 원래 이름은 그레테 리호츠키(Grete Lihotzky)였으나, 1927년 빌헬름 쉬테(Wilhelm Schütte)와 결혼 후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라는 이름을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성만 따르지 않고 결혼 전 성인 리호츠키를 병기해서 사용한 것은 당시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여기서도 그녀의 평등주의적 페미니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용에 있어서 어떻게 사회적 상황에 따른 인간 삶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쉬테-리호츠키가 집중했던 주거건축에서는 근대주거로의 전환기에 주거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많은 고민을 동반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위한 주거의 계획에서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과 건축의 접점에서 이슈가 되는 이러한 쟁점들을 쉬테-리호츠키의 건축 작업을 통해 고찰,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그녀가 활동했던 ‘레드 빈(Red Wien, Rotes Wien)’ 시기, 즉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의 특정 시대적 범주를 대상으로 하며, 쉬테-리호츠키가 남긴 건축유산과 사회활동에 대한 현장 사례조사 및 문헌연구로 이루어졌다. 특히 빈에 소개하는 집합주택 사례는 2016년의 현장 답사 및 쉬테-리호츠키 재단의 전시를 통해 확보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는 빈 공대(Technical University of Vienna)의 주거건축연구소와 빈 건축센터(AzW: Architecture Center Vienna)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그녀가 1930년 귀소련으로 이주하기 직전까지 빈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주거 건축으로 그 연구의 대상을 한정했다.²⁾ 이때 주거단지 계획, 평면 계획, 부속 설계, 그리고 실내디자인 등의 범위를 포함했다.

2. ‘레드 빈(Red Vienna: Rotes Wien)’ 시대의 주거상황과 주거 기능의 재정립

2.1. 1차 세계대전 직후 빈의 주택문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는 1차 세계대전 직전 1910년에 6만 4천여 명, 1912년에 9만 6천여 명의 노숙자가 있었으며, 그중 2만 명이 어린이였다. 당시 미트카저르네(Mietkaserne: 임대 병영막사)로 불리는 노동자 집단거주주택에는 화장실과 수도 설비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부엌과 방이 전부였다. 여기에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일이 빈번했다. 전체 주택의 약 22%에서는 침대 하나만 임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³⁾

빈의 경우 1914년까지는 이렇다 할 주택정책이 없었고, 대신 노동자주택이 주거 개혁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민간의 영역이었다. 초창기의 국가 및 사회의 역할은 사회민주주의적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유시설을 지원하는 정도였다.⁴⁾ 이는 후에 사택 건설로 이어졌고, 나아

가 공동주택 건설로 확장되었다. 이후 ‘공공주택으로서의 공동주택’은 도시 건축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는데, 이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이념과 맞물려서 진행되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 주거건축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1918년부터 1934년까지의 이 시기를 특별히 ‘레드 빈’이라 지칭한다. ‘레드 빈’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회민주당(Sozial Demokratische Partei)이 집권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빈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부터 전쟁의 여파로 더욱 심각한 주거난을 겪게 되었다. 1919년 빈 자치구에서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정치적 상황은 빈의 주거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레드 빈 주택정책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시민의 건강, 문화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했고, 그 중 주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920년대 이후 빈에서는 더욱 활발한 공공주택 정책이 시행되었다. 1923년 9월 빈의 시(市)의회는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실현하는 정책을 의결했고, 이후 14년 동안 348개의 주거단지, 6만 1천 여 호의 주택을 건설했다. 1934년에는 빈 시민의 약 1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기에 이르렀다.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건축가들에게는 관공서, 문화시설 등의 고급건축 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주거를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때 주로 중정형의 고밀도 집합주택들이 대거 건설되었고, 이러한 계획에는 주거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여, 공공주택에는 공유시설로서 세탁장, 목욕탕, 유치원, 상점, 도서관, 집회공간 등이 제공되었다. 또한 대부분 가스, 수도, 화장실 설비를 갖추었다. 이러한 주거계획의 기초는 레드 빈 시대 건설된 주거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1924년에는 ‘오스트리아 주거·소정원 연합’이 결성되었고, 이 협회의 의뢰로 1925년 국민주택인 비나르스키 호프(Winarsky Hof)가, 1926년 오토 하스 호프(Otto Haas Hof)가 건설되었다. 총 760호의 주거세대로 이루어진 이 두 주거단지의 계획에는 쉬테-리호츠키를 비롯하여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 요셉 프랑크(Joseph Frank), 요셉 호프만(Joseph Hoffman), 아돌프 로스(Adolf Loos), 오스카 스트란드(Oskar Strand)가 참여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정책과 함께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운동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즉, 심각한 주택문제를 스스로 타개하고자 하는 거주자운동(Siedlerbewegung)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정원에 딸린 오두막을 개조하여 거주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했지만, 이후 조합을 결성하여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21년 빈에

2) 그녀는 193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망명생활을 했는데, 이후 빈으로 돌아온 후에는 주거보다는 학교 및 유치원 설계에 매진했다.

3) Förster, Wolfgang & Seidler, Harry, Sozialer Wohnungsbau, innovative Architektur, Wohnpark Neue Donau Wien, Prestel, München, 2002, p.8

4) Zimmer, Ulrike, Siedlung und Siedlungsbewegung im Wien der Zwischenkriegszeit, Österreichischer Kunst- und Kulturverlag, Wien, 2002, p.32

5) Förster, Wolfgang & Seidler, Harry, op. cit., p.15

서는 주택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여기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력 건설을 요구했고, 시 차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건축자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빈 시는 주거부서를 신설했고 이것이 '주거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라는 이데올로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⁶⁾ 이렇게 공공이 주거에 개입하면서 사회민주주의적 패러다임은 더욱 힘을 얻었다.

2.2.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 내에서의 건축 및 주거담론

(1) 레드 빈 시대의 건축의 지향점

1918~1920년 사이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혼란기에 등장한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조용한 혁명'을 이루고자하는 성향이 있었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부유하는 대중을 혼육하고, (급진적)혁명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아가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았다. 그들은 비록 자본주의적 소유 질서는 근본적으로 유지하되 '보다 강력한 사회국가적 요소가 병행하는, 보다 평등한 국가시민사회'를 지향했다. 즉 혁명적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자세를 견지했다.⁷⁾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자유방임주의적 시각과는 대립적으로, 주거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을 전체로 한다. 사회주의의 낙원을 이루고자 했던 사회민주당 정부는 시민의식과 생활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노동자문화(Arbeiterkultur)'를 형성하고자 했다.⁸⁾

레드 빈의 큰 기조 역시 '건축은 사회적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매체'라는 것이었다.⁹⁾ 이때 건축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구성체'라는 개념을 부여받았고, 건축가들은 건축설계를 통해 사회적 질서와 시스템을 조직하고자 했으며, 특히 '생활과 일'의 조건을 인간답게 제공해주고자 했다. 여기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 질서와 시스템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일과 소비의 경제적 일치'이며, 주거건축의 입장에서 보면 '일과 일상, 일과 주거의 통합'이다. 이러한 이념에 따르면 주거는 철저히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건축가들은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가정의 생산기능을 수행하고, 공동의 일상을 갖도록 해 주거에 적합한 환경이라 생각했고, 이때 건축을 통해 이를 조직할 수 있다고 믿었다. 레드빈 시대의 건축은 특히 주거문제에 있어서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의 '위생화(Hygenisierung)' 및 '규율화(Disziplinierung)'에 주안점을 두었다.¹⁰⁾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주거단지에는 공통적으로 공동의 공방, 도서관, 유아원, 종교시설 등이 배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민주주의 건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한 개혁가는 영국의 기업가이자 사회주의자인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었다. 그는 대도시의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목표로, 산업혁명에 반기를 들고 임노동 대신 공동체적 생산을 주장했다. 그가 19세기 초에 제안한 '홈 콜로니(Home Colonies)'는 500~2만 5천명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자력 경제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이상적 공동체였다. 이는 소위 '공장 주거단지'의 건설로 현실화되었다. 이것의 모델은 뉴 라나크(New Lanark) 협동마을이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가 사회민주주의 개념을 사회경제적·철학적 바탕 위에서 정립하고자 했으며, 역시 주거와 생산을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19세기 초반 팔랑스테르(Phalanstère)라는 공동주거를 계획하면서 이를 인간 자아실현의 장, 즉 새로운 유토피아적 공동체로 구현하고자 했다. 특히 여성해방과 여성 평등을 중요시하여, 주거지 내에서 교육적 목적의 공동육아 장소를 마련했다.¹¹⁾ 레드 빈 시대 공동주택의 계획 개념은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건축 대안들을 모델로 삼았다.

(2) 사회구성 요소로서의 주거

전통적으로 주거의 기능은 거주자의 가정 내 재생산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휴식, 여가, 소비, 양육, 가사노동 등이 포함된다. 주거공간에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가사노동 영역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 이웃,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로 결정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 기능의 위계에 따른 공간들의 적절한 배분과 배치가 전체 주거지 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레드 빈 하에서의 사회민주주의 건축의 주요 목표는 건축물을 통해 표현되고 만들어지게 될 '문화의지(Kulturwille)'였다. 문화의지가 추구하는 비전은 전체 사회를 혁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종착점으로서 사회주의 문화운동과 노동자 교육을 통해서 탄생할 '새로운 인간'이었다.¹²⁾ 빈의 사회민주주의 주거 개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결혼과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였고, 이른바 산업화 시대 새로운 노동자 가족상의 정립 또한 중요한 사회의 목표였다. 이때 여성에게는 자녀를 위생적으로 돌보고 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또한 바깥일을 하는 남성이 집안에서 안락하게 쉬도록 해주는 것 역시 주거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6) Ibid., p.10

7) 정현백. 주거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당대. 서울. 2016, pp.90-91

8) 손세관. 이십세기 집합주택. 열화당. 서울. 2017, p.128

9) Förster, Wolfgang & Seidler, Harry, op. cit., p.13

10) Zimmer, Ulrike, op. cit., pp.20-23

11) Ibid. p.23

12) 정현백. op. cit., p.95

계획가들은 공동체 주거를 통해 당시 노동자 집단거주 주택인 미트카저르네(Mietkasere)에서는 불가능한 거주요건을 조성해 주고자 했다.¹³⁾ 즉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저렴한 주택을 마련해 주되, 협소한 가족 공간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기능을 공동체 주거에서의 공유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해주고자 했다. 그들은 '사회적' 지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거공간이 완전한 하나의 가족 공간으로 완성되어진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생활'로의 재편을 모색하는 레드 빈 시대의 패러다임 하에서 주거계획은 주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공간 구성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테면 사적 기능과 가사노동 기능이 주거지(혹은 주거단지)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가의 문제, 거주자의 커뮤니티와 사생활이 각각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 일상생활의 규율과 통제가 공공의 기능인가, 개인의 자율인가의 문제, 근대 가족에게 있어서의 단위 주거 내 기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거의 계획과 건설에서 공공과 거주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3. 슈테-리호츠키의 주거계획 사례 및 특성

3.1. 슈테-리호츠키의 생애와 건축활동¹⁴⁾



<그림 1>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

슈테-리호츠키는 레드 빈 시대 활발히 활동했던 건축가이자 동시에 사회운동가였다. 1915년에 현재의 빈 응용미술대학의 전신인 빈 예술공예학교에 입학하여 오스카 스트란드(Oskar Strand) 밑에서 수학했다. 그녀는 이 학교의 최초의 여학생이었다. 재학 중 1917년 '노동자주택을 위한 건축' 설계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스승인 오스카 스트란드가 "도면의 선을 그리기에 앞서

노동자 거주 구역에 가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거주하는지를 살펴보라"고 한 말은 그녀 인생에 전기를 가져왔다. 설계 공모전에 당선된 후 슈테-리호츠키는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관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실천적 태도를 줄곧 유지했고, 특히 '주거'를 일생의 과업으로 삼게 되었다. 그녀는 일찌감치 주택에서의 거주조건과 건강과의 상관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슈테-리호츠키는 '건축은 인간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

는 것'이며, '건축은 목적지향적 학문으로서 기술적·학문적 지식을 적용하여 인류에 기여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형태의 구성과 예술적 감각을 동원하여 환경에 대한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¹⁵⁾

슈테-리호츠키는 학교 졸업 후 1926년까지 빈에서 건축가로 활동했으며, 1926년부터 1930년까지는 프랑크푸르트의 시(市) 건축가 에른스트 마이(Ernst May)와 함께 뢰머슈타트(Römerstadt) 주거단지 계획에 참여했다. 이후 1929년에는 CIAM 대회에서 활약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공공건축 활동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마이는 구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여러 건축가가 동행했다. 슈테-리호츠키 부부도 소련으로 이주하여 1938년까지 활동했다.

이후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 슈테-리호츠키는 파리, 터키 등으로 이주하며 망명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건축활동을 계속하면서도 반파시즘 활동을 하는 등 정치적 저항 활동을 병행했는데, 이로 인해 한때는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빈으로 귀향하여 주거건축과 유치원 건축 설계에 매진했다. 1960년대에는 쿠바와 동독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이후 타계할 때까지 빈에서 교육자, 건축가, 여성운동가 등으로 활동했다.¹⁶⁾ 이러한 그녀의 발자취를 볼 때, 그녀에게 있어서 건축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적 이상향을 구현하는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다.

3.2. 슈테-리호츠키의 주거운동 및 계획 사례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주자 참여 주거단지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주택 수요의 폭증, 실업과 물가 폭등, 가난, 기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쟁 중 주택부족에 시달리던 빈에서는 소위 'wilde siedeln(wild settle)'이라는 임시거처에서의 거주가 만연하였다.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자 시는 1919년부터 건축 부지를 제공하여 소규모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것이 거주자운동(Siedlerbewegung)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의 시대에 들어선 20세기 초의 삶은 이미 과거와는 다른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건축가들은 '미래 주거(당시의 기준으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때 여성의 사회진출, 이웃 교류에 대한 요구, 다양한 가족 및 거주자 유형의 등장 등이 중요한 이슈였다. 따라서 주거 건축물의 물리적 조건과 함께 그 내용, 즉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다.

거주자운동이 시작되면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던 슈테

13) Häußermann, Helmut & Siebel, Walter, Soziologie des Wohnens, Juventa, Weinheim und München, 2000,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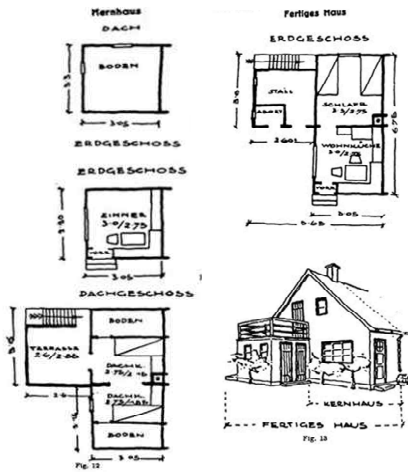
14) 2016년 슈테-리호츠키 재단 전시관의 전시, <http://www.schuette-lihotzky.at/index.htm>, <https://en.wikipedia.org> 등을 참조하여 정리, 요약.

15) 2000년 MAK에서 열린 전시회중 인터뷰.

16) Bauwelt, Vol.88 No.4, 1997, p.136

-리호츠키 역시 1922년 거주자운동을 위한 단지설계와 주거타입 개발에 매진했으며 건설방식도 계획했다. 또한 거주자를 위한 시민학교 및 건축학교를 운영하며 가구 및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교육하고 주거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그녀가 제안한 최소주택인 코어하우스(핵심주택 : Core house, Kernhaus)는 거주자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코어하우스는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기본 평면형에서 출발하여 추후 증축으로 완성되는 개념을 갖고 계획되었다. 즉 거주자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거공간을 확장하고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건축자재는 공동으로 조달하도록 했으며, 거주자가 자력으로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어하우스 4호의 경우, 처음에는 거실 겸 주방 하나와 침실 하나를 제공하고, 여기에 3.6m x 2.6m 정도의 공간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T자형 평면을 완성하도록 했다. 증축한 공간은 나중에 가축 우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외부에서 출입하는 변소가 배치되었다. 쉬테-리호츠키는 거주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20여 가지 유형의 코어하우스 주거타입을 개발했고, 이를 1923년 ‘오스트리아 소정원·단지·주거’ 전시에 모델하우스로 출품했다.¹⁷⁾



<그림 2> 코어하우스 4호 주택의 스케치 (출처 : Zimmel, U., 2002.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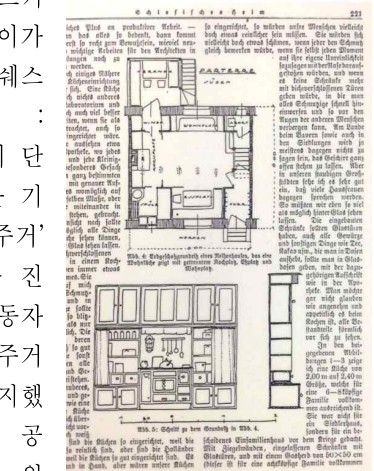
간단한 수단으로 직접 지을 수 있는 코어하우스는 노동자들이 집안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건축가는 각 공간 안에서의 인간 활동을 예측하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합리적인 동선을 계획해주되, 이를 거주자 참여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건축, 인간 중심의 건축을 쉬테-리호츠키는 ‘사회적 건축’이라 규정했고, 건축의 사회적 책무라 생각했다.¹⁸⁾ 빈에서의 거주자운동은 유럽 유일의 운동으로서 주거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7) 2016년 쉬테-리호츠키 재단 전시관의 전시내용 중 발췌.
18) Bauwelt, op. cit., p.136

(2) 최소 평면 및 노동자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1921년 쉬테-리호츠키는 독일 건축가 마이가 발행한 잡지 ‘슐레지셰스 하임(슐레지엔 주거 : Schlesisches Heim)’에 단지계획에 관한 논문을 기고한 것을 계기로, ‘주거’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노동자 및 도시 서민들의 주거 계획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¹⁹⁾ 특히 이 시기의 공동주택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로서, 그녀는 초기에는 ‘호이베르크 시범주택(1921)’, ‘에텐 주거단지(1922)’, ‘히르쉬스텐덴 주거단지(1922)’ 등과 같은 연립주택 형식의 노동자주택 설계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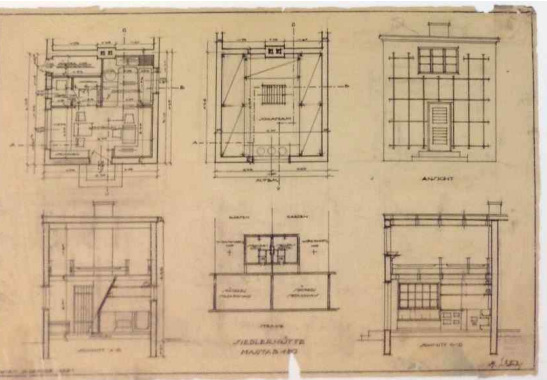
한편, 1921년 오스트리아 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최초의 공공주택 조합이 결성되었고, 이때 쉬테-리호츠키는 ‘거주자 쉼터(Siedlerhütte)’라는 임시거처를 설계했다. 이는 본격적인 주거단지가 건설될 때까지의 거처로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에 중요한 기능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콤팩트한 주택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최소주택의 개념은 192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CIAM 대회에서의 ‘최소한의 주거’ 개념의 초석이 되었다. 즉, 이는 ‘개개인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익명의 거주자를 위한 건축’으로 건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시도였다. 코어하우스의 여러 모델 중 하나인 ‘7호 주택’의 사례에는 최소 평면을 시작으로 하는 5단계의 증축 사례가 제시되었다.



<그림 3> 잡지 ‘슐레지셰스 하임(Schlesisches Heim)’의 부엌 연구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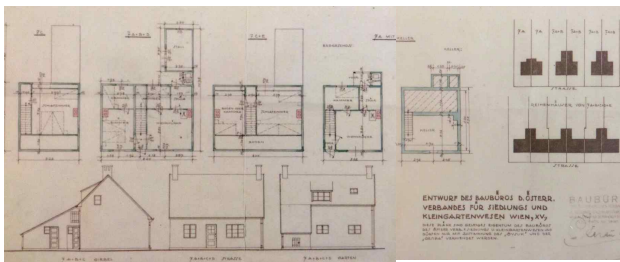
<그림 4> 참전용사를 위한 거주자 쉼터 전경(위)과 평면(아래)

19) Ibid.



이때 평면에는 모듈화된 그리드 및 구조시스템 개념이 적용되었다. 또한 모델하우스로 전시된 실물 주택의 창, 문, 계단들에는 표준화된 치수의 제품이 사용되었다. 평면의 증축 단계는 다음과 같다.²⁰⁾

- 1단계: 거주부역 및 2층에 위치한 침실 하나로 구성된 최소한의 거주자 쉼터(Siedlerhütte)
- 2단계: 1단계 + 가축 우리
- 3단계: 2단계 + 2층의 침실 확장
- 4단계: 3단계 + 침실 2개 추가
- 5단계: 4단계에서 부역이 벽감(壁龕)식 조리부역(cooking-niche)과 개수대 부역으로 구성되고, 이를 정원 쪽으로 추가



<그림 5> 코어하우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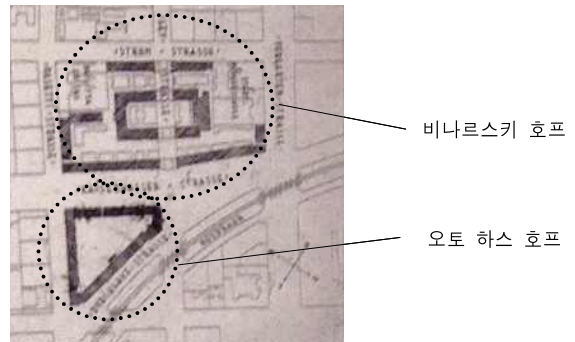
<그림 6> 코어하우스 7호 주택 실물과 내부의 거주부역 (출처: Hochhaeusl, S., 2013, p.11, 12)

본격적인 레드 빈 주거정책이 확산되면서 중정형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주로 도심에 위치한 공동체 주택들이 중정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1925년 건설된 비나르스키 호프와 1926년 건설된 오토 하스 호프²¹⁾는 서로 인접한 3개의 주거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오토 하스 호프는 오스트리아 주거연합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지원에 힘입어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273호의 주거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공동 세탁장, 공동 욕아공간, 체육시설 등이 있어서 공동체 생활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었다.²²⁾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이와 같은

20) Hochhaeusl, Sophie, From Vienna to Frankfurt Inside Core House Type 7: A History of Scarcity through the Modern Kitchen, Architectural Histories, European Architectural History Network, Vol.1 No.1, 2013

21) 오토 하스 호프는 원래 아돌프 로스가 테라스하우스의 형태로 건설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거절됨에 따라 쉬테-리호츠키가 이를 넘겨받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다.

22) 쉬테-리호츠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치원 설계에 매진했는데, 여기서 미래에 도래할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공동 욕아에 대한 그녀의 신념을 읽을 수 있다. 유치원 설계에서는 기술적 도구를 최대한 활



<그림 7> 비나르스키 호프와 오토 하스 호프 배치도

빈의 중정형 주거유형에 대해 독일의 좌파 극작가 에른스트 톨러는 독일의 '시민지향적' 기능주의와는 다른, 보다 '프롤레타리아적 문화적 형태'라고 평했다.²³⁾

삼각형의 대지에 계획된 오토 하스 호프는 평지붕을 갖는 수평적 매스를 강조했다. 파사드는 분절 없이 길게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장식도 배제되었는데, 외관과 형식에서 '현대성'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입면은 직방체를 유지했으며, 수평성을 강조했다. 여유있는 중정 공간과 굽직한 건물의 규모를 강조했는데, 이 역시 실용주의적이면서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적 성향을 보여준다.²⁴⁾ 두 주거단지의 2호 조합의 평면에는 테라스를 제공했고, 3호 조합의 평면에는 로지아를 두었다. 이러한 구성은 이후 주거동내 공용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콤팩트한 4호 조합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나중에 빈의 조합주택의 전형적 구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림 8> 비나르스키 호프의 입구와 중정



<그림 9> 오토 하스 호프의 전경과 중정의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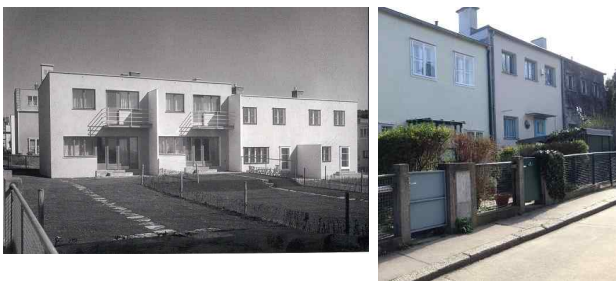
용하고, 계획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평면계획 및 면적 절감에서의 최적의 해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는 결국 저비용 건축으로 이어졌다.(Eicher, J., Margarete Schuette-Lihotzky, in; Deutsche Bauzeitung, Vol.131 No.3, 1997, p.20)

23) Förster, Wolfgang & Seidler, Harry, op. cit.,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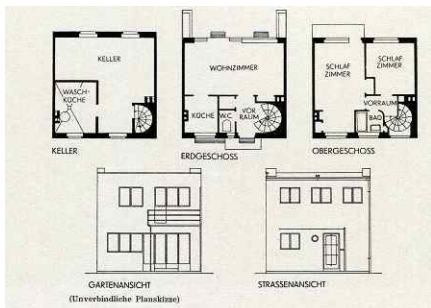
24) Wehsmann, Helmut., Das Rote Wien - Sozialdemokratische Architektur und Kommunalpolitik 1919-1934 -, Promedia, Wien, 2002, p.285

한편에서는 중정형 단지와 대조적인 성격을 갖는 전원형의 개방적인 단지에 대한 계획도 시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원도시 정책을 위해 빈 시 당국은 소형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은 낮은 천정과와 함께 나무 계단 설치가 가능했고, 옥상정원도 설치하도록 했다. 1921년 아돌프 로스가 초빙건축가로 참여한 전원도시 주거 계획인 호이베르크 시범주택에 쉬테-리호츠키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단지는 1932년도의 공작연맹단지(Werkbundsiedlung)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

공작연맹단지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건축방식을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²⁵⁾ 즉, 최소주택이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더욱 강조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결국 나중에는 사적인 공간을 더욱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공작연맹단지 중 쉬테-리호츠키는 연립형의 2층 주택을 설계했다. 단위세대는 6.0m x 6.0m의 정방형의 평면으로, 지하실과 두 개층의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콤팩트한 매스를 갖는다.



<그림 10> 공작연맹단지 연립주택 건설당시 전경 및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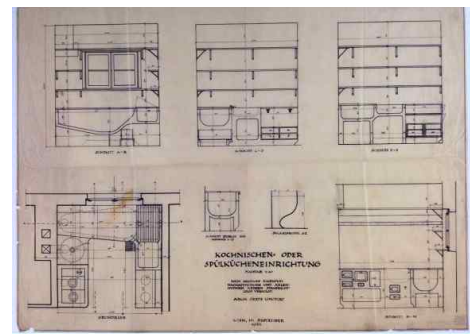


<그림 11> 공작연맹단지 연립주택 평면 및 입면 (출처: Salzmann, M., 2013, p.211)

(3) 여성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부엌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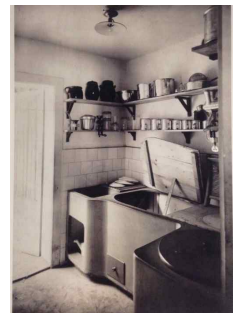
20세기 초 빈의 노동자주택에서 부엌은 거실과 통합된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를 일반적으로 거주부엌(본취헤, Wohnküche)라고 불렀으며, 다기능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다. 쉬테-리호츠키는 1922년 소규모 주택인 지들러하우스(Siedlerhaus)의 계획에서 이 거주부엌을 새로운

구성으로 변화시켰다. 거주부엌(Wohnküche)으로서의 성격은 유지하되, 개수대가 있는 부엌을 따로 구분해서 계획했다. 이러한 부엌 구성 방식은 코어하우스의 경우 5번째 증축 단계에서 벽감(壁龕)식 조리부엌과 개수대 부엌으로 분화한 구성과 일치한다. 즉, ‘불의 공간’인 거주부엌 및 조리부엌에는 거주용 난방과 취사를 겸용할 수 있는 화덕(가열대)을 두었고, 이를 ‘물의 공간’으로서의 개수대 부엌과 분리했다. 이때 싱크대는 콘크리트로 생산하여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싱크대 외에 불박이 찬장 및 작업대를 배치하여 부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설비를 확충했다.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지들러하우스의 벽감식 조리부엌 계획안

1921년 쉬테-리호츠키는 빈에서 독일 건축가 마이와 조우했는데, 이들은 주거 내 가사노동의 절감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마이의 제안으로 그녀는 5년 후 프랑크푸르트 뢰머슈타트(Römerstadt) 주거단지의 건설에서 부엌 계획을 실현하게 되었다. 또한 쉬테-리호츠키의 다양한 부엌 디자인은 1927년 프랑크푸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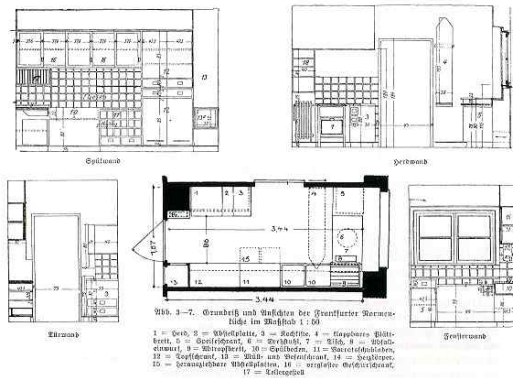
<그림 13> 공장생산된 개수대 부엌

의 봄 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새 시대의 가사(家事)’ 전시에서 프랑크푸르트 주부 연합의 초청으로 전시되었다. 여기서 쉬테-리호츠키는 가정의 규모에 따라 설계된 세 가지 타입의 목재가구 부엌과 각각 금속 및 석재로 된 시험 부엌 두 타입을 선보였다. 여기서 부엌 가구 재료에 따른 경제성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했다.²⁶⁾ 가정의 규모는 수입에 따라, 그리고 하인의 유무 및 하인 수에 따라 분류했다. 첫째, 가사보조인이 없는 가구, 둘째, 한 명의 가사보조인이 있는 가구, 셋째, 두 명의 가사보조인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부엌들을 디자인했다.²⁷⁾

25) Jahn, Harald A., Das Wunder des Roten Wien, Zwischen Wirtschaftskrise und Art Déco, Band I, Phoibos Verlag, Wien, 2014, p.229

26) Kaiser, Regular, Henz, Alexander & Gysi, Susanne, Die Küche, Hefte zum Wohnen, Nr.3, ETH Wohnforum, Zürich, 1996, p.13

27) Lihotzky, Grete, Rationalisierung im Haushalt, in: Das neue Frankfurt für die Probleme kultureller Neugestaltung, Heft 5,



<그림 14>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계획안
(출처: Kähler, G., 1996. p.276)



<그림 15> 프랑크푸르트 뉘른슈타트 주거단지에 설치된 프랑크푸르트 부엌

하인 없는 부엌은 슈테-리호츠키가 설계한 여러 종류의 부엌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부엌이었다. 이 부엌은 가사노동을 돕는 사람 없이 주부가 혼자 일할 때 가장 편리하고도 경제적인 규모로 계획된 것으로서, 조리만을 위한 부엌인데,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대명사가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시스템키친의 원조로서, 이후 1만개 이상 생산되었으며, 미국의 부엌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²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공황은 보통의 서민 가정에게는 물론이고 중상류층 가정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는 가사일을 돕는 하인을 두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사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의 부엌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깨끗하고 관리하기 쉬운 기능적인 부엌에 대한 디자인은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또한 조리기구, 조리 연료, 싱크대 등 새로운 설비가 등장했다. 이때 부엌의 작업공간 내에서 모든 설비를 손쉽게 사용하고 조리기구나 그릇, 식재료 등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공간의 치수를 적용하여 피로를 줄이도록 했다.

부엌은 하인에게 주어졌던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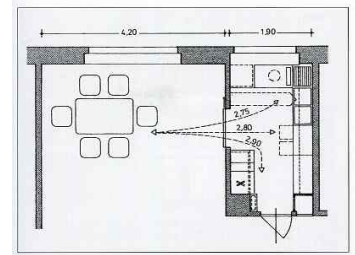
이 아니라, 어떤 여성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규정되었다. 부엌에서 일할 때의 주부의 동작과 행동 특성들을 면밀히 연구한 후, 부엌에는 설비나 가구 등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었고, 작업할 때 합리적인 동선으로 움직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인간 행태와 움직임, 공간의 치수, 규격화된 설비의 배치와 디자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건축계획적 연구 자료들은 오늘날 기능주의·합리주의 주거건축의 초석이 되는 것들이다.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었다.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작업부엌(Arbeitsküche)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최초의 독립부엌으로, 식사공간은 거실에 배치되었다. 기능적인 가사노동의 공간으로서의 부엌, 그리고 가족의 공동생활공간으로서의 거실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거주부엌으로부터 변화한 큰 혁신이다. 작업대들을 벽에 이어 붙이는 빌트인 가구를 장착하여 부엌 소요 면적을 줄인 점도 큰 변화이다. 전체 주거공간의 난방은 중앙난방식의 라디에이터로 하도록 되어, 난방과 취사의 연료 및 설비가 분리되는 혁신을 이루었다. 프랑크푸르트 뉘른슈타트의 부엌에는 조리만을 위한 가스렌지와 싱크대가 있었다.

(4) 가구 및 실내디자인

슈테-리호츠키는 부엌 외에도 생활공간의 가구디자인과 인테리어에도 관심을 두었다. 1922년에는 상품신탁회사를 설립하여 가구생산에 관여했으며, 인테리어를 위한 저렴한 시리즈 생산물을 디자인했다. 1929년에는 칼 마르크스 호프 주거단지에 인테리어 및 주거설비를 조연해주는 주거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기도 했다.²⁹⁾

특히 슈테-리호츠키는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공간의 면적 절약, 효율적인 배치 및 동선 계획을 목표로 하는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925년



<그림 16>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규모 및 동선에 대한 연구 (출처: Kähler, G., 1996. p.277)



<그림 17> 노이바허 가족을 위한 인테리어 및 가구 설계

1927, p.122
28) Eicher, J., op. cit., p.20

29) Förster, Wolfgang & Seidler, Harry, op. cit., p.19

빈의 노이바허(Neubacher) 가족의 의뢰로 디자인된 거실 및 침실의 계획에서는 공간에 꼭 맞는 빌트인 가구를 배치하여 35~40%의 면적 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이때 가구의 생산은 공장생산의 시리즈물로 공급 가능하도록 했다.³⁰⁾ 이러한 디자인의 연장선상에서 슈테-리호츠키는 192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새로운 주택과 인테리어’라는 주제의 봄 박람회에서 “리-쉬(Li-Schü)”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작고 저렴한 주말주택을 전시했다. 여기에는 빌트인 된 옷장, 세탁물 박스, 책장, 수납장, 그리고 침대로 변용할 수 있는 소파세트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³¹⁾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빈을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서 주거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또한 주택의 내부에 개별 화장실이 갖추어지는 등 주택의 설비도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되었고, 주택의 편의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집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다. 거주자들은 돈을 모아 새 가구를 사들이는 등 집을 치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라인하르트 지더(Reinhard Sieder)는 ‘거주의 미학화’라 했으며, 이는 노동자 계층에도 차츰 뿌리내리는 현상이었다.³²⁾ 슈테-리호츠키가 가구 및 인테리어로 관심사를 확장한 데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3.3. 슈테-리호츠키 주거계획에서 나타나는 근대 주거건축의 개념

이상과 같이 슈테-리호츠키의 레드 빈 시대 주거건축 및 부엌과 실내디자인 작업들을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근대 주거건축의 과도기적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코문주의 개념과 근대적 가족을 위한 가족주의 개념의 다양한 시도를 볼 수 있었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레드 빈 시대의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노동자의 해방, 그리고 이때 공공이 개인의 삶에 관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했다. 즉, 코문주의 개혁가들이 노동자와 빈민의 주거문제를 그들의 삶과 생활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주장³³⁾을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시민사회의 대두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시도 역시 이루어졌다.

오토 하스 호프가 코문주의를 지향하여 프롤레타리아적 문화를 반영하는 거대한 중정 중심의 공동주택 계획

이었다면, 공작연맹 단지는 개별적인 독립주택이 모인 단지배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독일식의 개방형 배치방식³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개인의 정원을 갖는 방식은 큰 차이점이다. 나아가 인테리어 및 가구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도래한 핵가족만의 단란한 공간, 즉 ‘주거의 성채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었다. 즉, 공동체 거주행위보다는 가족주의적 패러다임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건축의 관심사가 이동함을 의미한다.

둘째, 주거의 취득 및 시공과정에서 개별성과 익명성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주택의 대량생산 시대에는 익명의 거주자를 가정하고 공간에 대한 요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산업사회의 소가족을 위한 새로운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매우 중요했다. 평면 계획에서는 소규모 주택의 대량생산, 모듈화된 평면, 부재의 공장 생산을 염두에 두었다. 결국 이는 ‘기능주의 주거건축’의 근간을 이룬다. 익명의 거주자를 위한 계획은 노동자를 위한 소규모 평면에서 더욱 필요했는데, 이는 나아가 근대주택 회의인 CIAM의 주제인 ‘최소한의 주택’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때 거주자의 요구와 건축가의 일방적 프로그램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는 늘 존재했다. 당시 슈테-리호츠키를 비롯한 사회민주주의 건축가들이 고안한 해법은 거주자를 주거의 계획과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코어하우스의 경우와 같이 기본 모델하우스를 제시해 주고, 이후 거주자에 의해 필요한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주거의 취득과 생산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선제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주거공간의 구성과 사용방식에서 공동성·공유성과 합리성·기능성의 개념이 공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인을 두기 어려운 노동자 및 서민 계층에서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장 등에 취업하여 임노동에도 종사해야 하는 임무가 동시에 주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인 ‘평등성’에 기반한 ‘가사노동의 합리화’라는 명제가 등장했다.³⁵⁾ 오토 하스 호프와 같은 공동체 주택의 사례는 전통적으로 가정 내의 기능이었던 보육, 세탁 등을 공동성·공유성의 개념 하에서 단지 내 공유시설에서 수용하고 이를 개인의 공간에서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때 공유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규율과 통제가 작동하면

30) 이상 전시내용에서 발췌.

31) Kähler, Gert(Ed.), Geschichte des Wohnens, Vol.4, DVA, Stuttgart, 1996, p.262

32) 정현백, op. cit., p.103에서 재인용.

33)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서울, 2000, p.261

34) 최초의 근대적 주거단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92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건설된 공작연맹단지 전시회에서의 시도들.

35) “주부의 노동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주는 것은 모든 계층의 시민들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일손의 도움 없이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에게나, 밖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여성에게나 부업 일은 모두 부담이며, 종종 끝없는 과로를 요구한다.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말은 이 개념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Kaiser, Regular, Henz, Alexander & Gysi, Susanne, op. cit., p.41.에서 재인용.)

서, 생활공간에 공공이 개입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경우와 같이 음식 조리 등의 가사노동을 개인의 공간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 큰 반향을 일으켰다. 편리성을 극대화 한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가사노동 공간이지만, 공유공간에서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철저한 사적 영역으로 규정되었다.

넷째, 주거공간 내부에서는 페미니즘 개념과 젠더 구분 개념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 사회의 일터, 학교 등의 공간들은 개개인을 근대적 형태로 생활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특정한 힘을 행사하고, 개인이 특정한 형태의 생활양식을 습득하고 반복하게 한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뚜렷이 분리되어, 산업사회에서 주거공간은 여성의 공간, 사회는 남성의 공간으로 재편성된다.³⁶⁾ 이로써 가정과 사회는 분리되며, 주거공간은 생업을 위한 노동이 행해지는 공간과 대비되는 사적 공간으로 정착하고 '휴식'이 주거공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된다. 이때 주거공간은 여성의 공간이지만 여성의 노동이 집약되는 공간이 되고, '휴식'의 기능은 남성만의 전유물이 된다.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여성 노동의 경감'이라는 명제는 페미니즘적 시도이지만, 역설적으로 주거공간 내에서의 젠더 역할 구분을 전제로 함을 말해준다.

4. 결론

1920년대 중, 후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레드 빈 시대는 세기말의 혼란을 지나서, 정치·사회적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근대적 삶에 대한 재정립이 진행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건축가 쉬테-리호츠키의 주거건축에서는 단지설계부터 평면 계획, 그리고 주택의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의 주거계획의 혁신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가정과 사회의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일과 주거의 상호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쉬테-리호츠키의 주거 계획에서는 근대로의 전환기에 주거에서의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의 균형, 일상생활의 공간적 분배, 근대 가족에 맞는 주거의 기능 부여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과도기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합리주의·기능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미 쉬테-리호츠키의 건축 및 주거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싹트고 있었다. 그녀의 선각자적인 활동은 CIAM에의 참여를 기점으로 새로운 근대 건축의 이슈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주거의 진화와 혁신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탄생 과정 역시 사회 개혁 운동의 결과물이었으며, 이후의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초석이 되었다.

그동안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의 건축 작업은 프랑크푸르트 부엌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쉬테-리호츠키의 작업들은 한국에 최초로 알려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근대건축사 및 주거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손세관, 이십세기 집합주택, 열화당, 서울, 2017
2.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서울, 2000
3. 정현백, 주거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당대, 서울, 2016
4. Faller, Peter, Der Wohngrundriß, DVA, Stuttgart, 2002
5. Förster, Wolfgang & Seidler, Harry, Sozialer Wohnungsbau, innovative Architektur, Wohnpark Neue Donau Wien, Prestel, München, 2002
6. Häußermann, Helmut & Siebel, Walter, Soziologie des Wohnens, Juventa, Weinheim und München, 2000
7. Jahn, Harald A., Das Wunder des Roten Wien, Zwischen Wirtschaftskrise und Art Déco, Band I, Phoibos Verlag, Wien, 2014
8. Kähler, Gert(Ed.), Geschichte des Wohnens, Vol.4, DVA, Stuttgart, 1996
9. Kaiser, Regular, Henz, Alexander & Gysi, Susanne, Die Küche, Hefte zum Wohnen, Nr.3, ETH Wohnforum, Zürich, 1996
10. Salzmann, Müry, Werkbundsiedlung Wien 1932, Wien Museum, Wien, 2013
11. Wehsmann, Helmut, Das Rote Wien - Sozialdemokratische Architektur und Kommunalpolitik 1919-1934 -, Promedia, Wien, 2002
12. Zimmer, Ulrike, Siedlung und Siedlungsbewegung im Wien der Zwischenkriegszeit. Österreichischer Kunst- und Kulturverlag, Wien, 2002
13. 이란표, 초창기 모더니즘 여성 건축가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에 관한 연구 - 여성 공간의 혁명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계화로의 편입인가?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50호, 2005.6
14. 정찬미, 김현정. 20세기 초 한국과 유럽의 부엌 계획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부엌을 중심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73호, 2009.4
15. Eicher, J., Margarete Schuette-Lihotzky, in: Deutsche Bauzeitung, Vol.131, No.3, 1997
16. Eiblmayr, J., Margarete Schuette-Lihotzky ist 100 Jahre alt Betrachtungen, in: Architektur und Bauform, Vol.30, No.186, 1997
17. Hochhaeusl, Sophie, From Vienna to Frankfurt Inside Core House Type 7: A History of Scarcity through the Modern Kitchen, Architectural Histories, European Architectural History Network, Vol.1, No.1, 2013
18. Lihotzky, Grete, Rationalisierung im Haushalt, in: Das neue Frankfurt für die Probleme kultureller Neugestaltung, Heft 5, 1927
19. Lupton, E., The Modern Kitchen, in: Metropolis, New York, Vol.30, No.2, 2010
20. Bauwelt, Vol.88, No.4, 1997

[논문접수 : 2017. 10. 30]

[1차 심사 : 2017. 11. 16]

[게재확정 : 2017. 12. 08]

36) 이를 두고 이진경은 “노동자의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을 그 사회적 장으로부터 분리하여 고립된 가족적 공간으로 재영토화 하는 ‘반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기술했다. (이진경. op. cit., p.320)